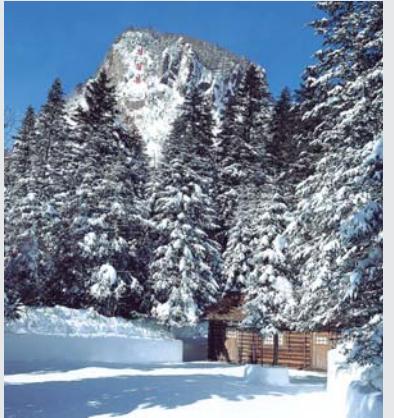




금강산

2

주제 110(2021)
루체 제378호 월간



표지: 백두산밀영고향집

혁명의 성산 백두산기슭의 소
백수골에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 잡고 있다.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 31(1942)년 2월 16일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 이 혁
사의 집으로 국내인민들은 물론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끝없
이 찾아온다.



뒤표지: 경축의 축포

편집: 최은혁



차 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2
자립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 길에서	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희망찬 새해 주체 110(2021)년을 맞으며 전체 인민들에게 친필서한을 보내시였다	6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개회사 . . .	10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1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	36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전원회의 진행	3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결론	4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폐회사	46

경축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 진행	49
최경예당과의 열병식, 열광의 환희	50

반 향

거 많은 철강제생산으로	57
우리의 철과 기술로	57
당의 사랑이 현실로 꽂펴나도록	58
새로운 승리는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58

수 기

콩우유에 깃든 사랑	59
-----------------------------	-----------

일 화

되새겨지는 이야기	60
강력한 조사력을 마친해주시려	61
인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군대	62
삼지연시인민병원	64

민족의 향기

오랜 역사를 가진 고려종이	66
정월대보름명절의 민족풍습	66



52



50



62



65



66

인민에 대한 사랑과 밀음으로

75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당으로 나날이 강화발전되고 있다.

조선로동당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는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오신 력사로 수놓아져 있다.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은 언제나 스승이였으며 인민의 의사와 리익은 당의 로선과 정책 작성의 출발적기초였다.

그이께서는 당령도의 첫 시기부터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들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였다.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시며 인민들의 소박한 말도 정책에 담으시고 무엇을 하나 창조하여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기뻐하는가부터 먼저 물어보시며 인민의 기쁨에서 보람을 찾으신 그이이시였다.

조선로동당이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제시한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그이께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내놓으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투쟁해 나가는 당으로 건설하시였다.

일찌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96(2007)년 2월 5일 그이께서 청진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남기신 된장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공장일군이 그이께 낫또균을 배양하여 토장맛이 나는 된장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그러면 이 공장의 장이 다른 기초식품공장들의 장과 맛이 다르겠구만라고 하시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공장일군에게 장맛은 장을 담그는 주부의 손맛에 따라간다는 말도 나왔지만 장생산이 공업화된 오늘에 와서는 장제품들을 철저히 규격화하여야 하며 공장에 따라 장맛이 각이한 현상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언제나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은 공장과 농촌, 어촌 등 조국땅 곳곳마다 뜨겁게 어려있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밀음을 지니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나라의 땅이 규격화된 포전으로 일신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공장과 기업소, 양어장과 과수농장,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건설된것 등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였다.

당사업에서 사람파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신 그이께서는 당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밀음과 사랑을 지니고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끌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자식을 위하듯 따뜻이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당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할 신념이 뿌리내리게 하고 당과 대중을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지게 한 사상정신적힘의 원천이였다.

인민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당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량심과 도덕의리로 간주하고 당의 령도를 충성다해 받들어왔으며 오늘도 변함없이 받들어가고있다.

참으로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된 당으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본사기자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담례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10월

자립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 길에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7(2008)년 12월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비날론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자립경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희망찬 새해 주체110(2021)년을 맞으며 전체 인민들에게 친필서한을 보내시였다

새해를 축하드립니다.
새해를 맞으며 전국적인 일상과
죽임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온 나라 모든 가정의 건강한 행복이
더 활짝 꽂피기를 부디 바라며 사랑하는
인민들의 국운은 안정을 경건히
축원드립니다.
새해 기원에서도 우리 인민의
기대와 염원이 꽃피는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헌신하며 축원드리며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언제나 지지해주신
마음을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대한 인민을 뜨겁게 축복
온 국민들을 빤히 응원하는 마음
행복에 헌신합니다.

김정은
2021. 1.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희망찬 새해 주체110(2021)년을 맞으며 전체 인민들에게 친필서한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친필서한은 다음과 같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에게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온 나라 모든 가정의 소중한 행복이 더 활짝 꽂피기를 부디 바라며 사랑하는 인민들의 귀한 안녕을 경건히 축원합니다.

나는 새해에도 우리 인민의 리상과 널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것입니다.

어려운 세월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언제나 지지해주신 마음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 변함없을것을 다시금 맹세하면서.

김정은

2021. 1. 1》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성대히 진행

주체 110(2021)년 1월 5일-12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개회사



친애하는 대표자동지들 !

우리의 수백만 당원동지들이 애국충성의 심장을 불태우며 정성다해 준비하고 고대하여온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소집되었습니다.

나는 먼저 대표자동지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건설자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송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대표자동지들 !

당 제7차대회가 확정한 사회주의건설의 당면한 목표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이 새로운 진군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나날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최악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은 우리 혁명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몰아왔으나 우리 당은 자기의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완강하고도 정확한 실천행동으로 거대한 승리들을 쟁취하였습니다.

총결기간 더욱 확대강화된 우리의 주체적 힘과 비상히 높아진 나라의 대외적지위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

가 도래하였음을 명백히 알리고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추이와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의 요구를 심도있게 분석판단하고 이번 당대회의 소집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의 간고한 상황에서의 당대회의 소집은 대내외형세의 변화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나 사회주의집권당인 우리 당의 투쟁 전망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정치적사변입니다.

당대회소집에 관한 역사적인 결정이 공표되자 온 나라 인민들은 크나큰 격동에 휩싸여 열렬히 지지찬동하였으며 우리의 위업을 적대시하고 방해하려는 온갖 반동세력들은 심대한 탄격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의 최고회의소집자체가 혁명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끌어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자신심의 표출이며 국가의 장래를 걸어지고 자기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인민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강렬한 의지와 엄숙한 맹세로 되기때문입니다.

우리 당중앙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되게 할것을 만천하에 전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총결기간 중앙위원회사업을 엄정히 총화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다시한번 명백히 확정하며 이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것을 당원들과 인민들앞에 약속한것입니다.

지난 5년간의 간고했고 영광넘진 투쟁려정에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당 제7차대회이후 반만년민족사에 대서특필할 기적적인 승리와 사변들을 안아옴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세세년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일련의 의미있고 소중한 성과들과 토대들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있습니다.

현존하는 첨첨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으로부터 이번 당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얻은 경험과 교훈, 범한 오류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가 할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과학적인 투쟁목표와 투쟁과업을 확정하자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룩한 성과도 귀중할뿐아니라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합니다.

이 모든것은 금전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는 피땀으로 쟁취한 승리와 성과들은 더욱 장려하고 확대발전시키며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당대회는 이런 배짱과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열렸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투쟁의 대회로서 자기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옳은 로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내놓으면 조선혁명은 새로운 도약기, 고조기를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이 대회를 분수령으로 하여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하게 될것입니다.

니다.

대표자동지들 !

당중앙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실속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지난 4개월동안 다음과 같은 사업들에 주되는 힘을 넣었습니다.

우선 당 제7차대회 결정집행정형을 전면적으로, 립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총화하고 앞으로의 전진발전을 위한 경험과 교훈을 찾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는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하고 아래에 파견하여 실태를 료해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당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도록 하였습니다.

료해사업은 소조들을 도들에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게 한 다음 성, 중앙기관들에 방향별, 부문별로 내보내여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료해검열소조들에서는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잘못한것은 무엇인가, 할수 있는것을 하지 않고 태공한것은 무엇인가, 실리적으로 한것은 무엇이고 형식적으로 한것은 무엇인가, 잘못한것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당적지도에서의 결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진상을 빼놓고 투시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간 중앙당 부서들과 전국의 당조직들이 지난 5년간의 사업정형을 총화한 자료들과 함께 앞으로의 투쟁목표와 계획에 대한 혁신적이며 구체적인 의견들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대회준비위원회에 제기하여왔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대중이야말로 훌륭한 선생이라는 귀중한 진리를 재삼 확인하게 되었으며 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의견을 널리 듣기로 한것이 정말 옳았다는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우리 당대회를 명실공히 전체 당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혁명적대회, 전

투적대회로 되게 하고 앞으로 채택될 당대회 결정을 전당의 조직적의사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당대회준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의 당재정사업을 분석총화하고 개선대책을 연구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당규약에서 지난 시기의 낡은것,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현실과 맞지 않았던 문제들을 혁명발전의 요구와 주체적 당건설원리에 맞게 바로잡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사업에 이바지한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전당적으로 기총당조직들과 도, 시, 군당위원회들,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당위원회들에서 지도기관 사업총화를 실속있게 하였으며 앞으로 당대회결정관철에서 핵심적역할을 할수 있는 당원들을 위주로 하여 당대회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회의들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혁명의 새로운 투쟁의 앞길을 밝힐 제8차 당대회를 위하여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온 나라 인민들은 정면돌파전의 기세드높이 당창건 75돐을 대경사로 빛내이고 충성의 80일전투에 총궐기하여 혁혁한 성과를 달성하면서 당대회의 성공적개최를 보장하였습니다.

당대회를 앞둔 존엄높은 자기 당에 영광과 힘을 보태기 위하여 성의와 노력을 다한 우리 당원동지들과 인민들의 드높은 정치적열의는 오늘의 세계에서 도저히 찾아볼수 없는 비상한 혁명성의 분출입니다.

그처럼 어려웠던 지난 한해 전례없이 장기화된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속에서도 어려움을 완강히 이겨내면서 방역사업에서 전인민적인 자각적일치성을 견지하고 그것을 애국적의무로 여기며 방역의 안정적形势를 시종일관 철저히 보장하였으며 자연

재해복구투쟁에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나라의 곳곳에 2만여세대의 새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운 그 위대한 공적은 우리 당 전투기록집에 또 하나의 자랑찬 폐지를 남기였습니다.

이밖에도 전국도처의 수많은 전구들에서 우리의 당원동지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귀중한 성과들로 가득찬 전투성과보고서를 당중앙위원회에 보내여왔습니다.

나는 겹쌓인 곤난을 이겨내는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의 두리에 억척같이 뭉친 단결과 단합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며 불라는 애국현신과 위대한 승리로 당 제8차대회를 굳건히 보위해준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연단을 빌어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이름으로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고귀한 삶을 아낌없이 바친 혁명동지들, 여기에 참가하지 못한 잊을수 없는 전우들을 경건히 추억하면서 모든 애국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진애하는 대표자동지들 !

지금 우리는 더없이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사명을 지니고 매우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각에 뜻깊은 대회장에 모였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또다시 새로운 승리에로 도약시키는 위대한 전환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75년 집권력사를 80년에로 억세게 잇는 결정적시각에 서있으며 수백만 조선로동당원들과 수천만 조선인민의 운명과 미래, 슬기와 지혜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진 도전과 불안정으로 가득찬 이 세계에서 우리 조선을 더욱 강대하고 부유한 길로 이끌며 우리 인민에게 행복을 당겨오는 지름

길을 가리켜야 할 중임이 우리들모두에게 지워져있습니다.

이 시각 지난 5년간의 혁명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확정하는 본 대회에 대한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과 기대, 열망은 대단히 크고 뜨겁습니다.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당을 절대신뢰하고 밟들어왔으며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당 제8차대회를 보위해준 인민들의 커다란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회사업에서 최고의 책임성과 열정을 발휘하여야 할것입니다.

본 대회에는 제7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 7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구성을 보면 당, 정치일군대표 1, 959명, 국가행정경제일군대표 801명, 군인대표 408명, 근로단체일군대표 44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대표 333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1, 455명입니다.

총대표자가운데 녀성대표자는 501명으로서 10%입니다.

대회에는 또한 방청으로 2, 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역사에서 여덟 번째로 되는 이번 대회의 전체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본 대회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철저히 충실히 엄숙히 선서하면서,

본 대회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국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는 디딤점이 되고 역사적리정표가 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대표자동지들의 진지하고 책임적이며 적극적인 참가를 기대하면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중대한 정치적 사변으로 되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주체 110(2021)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9시간에 걸쳐 하신 보고에서 제7기 중앙위원회의 사업정형을 전

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총화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한 새로운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조국통일사업과 대외관계를 진전시키고 당사업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파업들을 제기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조성된 대내외 형세하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주객관적 요

인들과 심중한 결함들을 인정하고 당과 국가사업 전반을 혁신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다음 단계에 이행시키는데서 나서는 명확한 투쟁파업과 방도들을 밝힌 위대한 실천강령이다.

현 단계에서의 조선혁명의 진로를 명시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의 진수는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현존하는 위협과 도전들을 과감히 돌파하고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며 확실한 전진을 이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당의 타월한 사상리론이 집대성되어 있는 사업총화보고는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투쟁행정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며 주체위업의 력사적뿌리와 오늘, 미래를 굳건히 이어주는 혁명적 문헌으로 된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를 굳게 믿고 간고한 투쟁의 년대들을 굽함없이 줄기차게 이어가는 행로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루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받아안은것은 우리당과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며 커다란 고무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는 다음과 같은 체계로 되어있다.

1. 총결기간 이룩된 성과
2.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하여
3.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4. 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의 서론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부여한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가 총결기간에 진행한 령도활동을 개괄적으로 언급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전원회의를 비롯한 주요당회의들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대책과 조치들을 취하고 그 집행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적극 불러일으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루하였다.

보고는 엄혹한 대내외형세속에서 경제사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발로퇴였지만 이것은 새로운 발전단계, 사회주의위업의 전진과정에 나타난 편향이며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얼마든지 바로잡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지적하였다.





1. 총결기간 이룩된 성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첫째 체계에서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대하여 궁지높이 총화하시였다.

당 제7차대회이후 지난 5년간 조선로동당은 맞다드는 모든 장애를 거대한 승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굴함없는 공격투쟁을 조직전개하였으며 이 과정에 쟁취한 승리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은것으로 특징지을수 있다.

보고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는 조선로동당이 역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맞받아 인민을 위함에 일심전력하고 자체의 힘을 완강히 증대시킨 결과로써,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써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이다.

보고에서는 우선 총결기간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구현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총화되었다.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지난 5년간의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성과는 우리 혁명의 첫째 가는 동력인 정치사상적힘이 비상히 확대강화된것이다.

당중앙위원회는 총결기간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기본정치방식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강력히 일관하게 실시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것은 총결기간 당중앙위원회가 한치의 드팀도, 추호의 양보도 없이 튼튼히 견지한 령도사상의 중핵이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과 국

가활동에 철저히 일관시키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면서 그 실현에 장애로 되는 온갖 반인민적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진행하였다.

보고는 당중앙위원회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의 공고한 정치풍토, 당풍, 국풍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주도세밀한 정치공세를 전개한데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치사상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기, 발전기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보다 강도높이 진행한것이다.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정신, 빨찌산정신으로 난국을 타개하며 개척로를 열어나가는 전당적, 전사회적인 기풍을 세운것, 하여 조선혁명가들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기질이 확고히 계승되도록 한것은 총결기간 거둔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된다.

당중앙위원회는 정세의 요구와 당의 의도, 혁명파업을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거세찬 투쟁으로 불려일으키는 정치활동을 적시적으로, 력동적으로 진행하였다.

혁명발전의 원동력을 인민대중의 심장속에서 찾고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위력은 부닥치는 난국과 정세변화에 대처하여 인민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로 발동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보고에서는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이 인민에 대한 헌신복무로 철저히 일관된데 대하여 언급되었다.

당은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민들의 절실한 생활상요구와 의사를 존중하고 모든 생산과 건설을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들의 반영과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고수하였으며 모든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이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힘을 기울이였다.

당중앙위원회가 인민군대를 군사적위협뿐 아니라 돌발적인 비군사적위협으로부터도 조국과 인민을 철벽으로 보위하는 국가방위의 주체, 참다운 인민의 군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게 한 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전당의 당조직들이 생활상곡절을 겪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참되게 이끌어주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단합시키는데서 소중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믿음과 헌신, 보답과 의리로 충만된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가 튼튼히 다져지고 어떤 장애와 도전도 뚫고나갈수 있는 불가항력적힘이 축적되었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뚜렷이 부각되였다.

보고는 정세가 아무리 엄혹하고 난관이 중첩되어도 그리고 내재된 결점들이 있다고 하여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철저히 구현하면 불리한 모든 주객관적요인들을 능히 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한 파제들을 용이하게 해결해나갈수 있다는것이 총결기간 재확증된 귀중한 철리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총결기간 자체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총화하시였다.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자력갱생을 자존과 자강의 생명선으로, 강력한 발전동력으로 틀어쥐고 겹쌓이는 난관을 뚫고 헤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공격전이였다.

당 제7차대회가 강조한 자력갱생정신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방침은 당전원회의들에서 더욱 심도있게 구체화되고 실천에 구현되였으며 이 과정에 우리당의 자력갱생전략은 적들의 비렬한 재재책동을 자강력증대, 내적동력강화의 절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이민위전

일심단결

호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들어쥐고나가야 할 정치로선으로 심화발전되였다.

자강력을 증대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속에서 자력갱생은 주체조선의 국풍으로,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으로 더욱 공고화되였다.

보고는 경제건설분야에서 비록 예견했던 전략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자체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켜나갈수 있는 소중한 밀천이 마련되었으며 여기서 의의있는 성파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물질적기초이고 생명선인 자립적민족경제, 사회주의경제의 기틀을 견지하고 그 명맥을 고수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판리를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하고 경제분야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전반을 재정비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새로운 잠재력을 축적하였다.

총결기간 당은 건설사업을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제고하며 인민들을 사회주의문명으로 선도하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으로 중시하고 힘있게 추진하여 나라의 면모를 크게 일신시키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지속된 혹심한 가뭄과 큰물,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과학농사, 다수확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알곡생산량을 전례없이 높이는 성파를 거두었다.

자립경제의 쌍기동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에서 주체화, 자립화실현을 위한 돌파구가 열리였으며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부문을 추켜세우고 정보통신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준비와 토대축성에서도 일련의 성파가 이루어졌다.

경공업부문에서 주요공장, 기업소들을 개전하여 인민소비품의 질과 생산량을 훨씬 높일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였으며 수산부문에서 생산을 계통적으로 장성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이기 위한 전국가적, 전군중적인 투쟁속에서 100여만정보의 산림이 새로 조성되고 치산치수와 국토환경보호, 도시경영사업에 필요한 력량과 수단들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중점대상파제들을 포함한 가치있는 과학기술성파들과 발명들이 이룩되었으며 교육부문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한층 강화되고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며 강력한 비상방역사업을 통하여 위생방역부문에 정연한 사업체계와 토대가 확립되었다.

체육을 과학화하고 체육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들이 전개되었으며 국가적인 재해방지와 위기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진척되어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들에 기동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되였다.

자체의 힘을 부단히 증대시키기 위한 지난 5년간의 투쟁에서 이룩한 성파들은 장기간의 극악한 재재봉쇄와 혹심한 재난속에서 자력으로 이루어낸것으로 하여 평온한 시기의 경제건설수자에 비할수 없는 몇십배의 강력한 분발력, 발전력의 결실이며 난관을 뚫고 축적한 자강의 억센 힘이 있기에 사회주의강국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장엄한 진군은 더 방대한 폭과 심도를 가지고 더 기세차게 가속화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국가의 핵전쟁억제력과 자위적국방력의 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파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우리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완성하는것은 우리가 리상하는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행정에서 반드시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전략적이며 지배적교지였다.

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전쟁피수인 미국에 의하여 국토와 민족이 분렬되고 이 침략세력과 세기를 이어 장기적으로 직접 맞서있는 조선혁

명의 특수성과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특성은 인민의 안녕과 혁명의 운명, 국가의 존립과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이미 시작한 핵무력건설을 중단없이 강행추진할것을 요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은 핵무력건설대업의 완성을 위한 강행돌파전을 작전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병진로선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것과 함께 국방과학자들과 핵과학자들을 참다운 혁명가, 애국자, 결사대로 준비시키기 위한 일대 사상전을 조직전개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걸고 당중앙이 진행한 정력적이며 탁월한 령도활동은 조선로동당식전략무기의 탄생을 안아오는 기적의 력사를 열어놓았다.

보고에서는 핵무력의 현대화목표달성을 지향한 완전히 새로운 핵능력을 갖추기 위한 혁명적인 대전환을 주도한 력사적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되었다.

당중앙의 직접적지도밑에 《화성포》계렬의 중거리, 대륙간탄도로케트들과 《북극성》계렬의 수중 및 지상발사탄도로케트들이 특유한 작전적사명에 맞게 우리식으로 탄생한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국가의 지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표상을 주었으며 완전무결한 핵방패를 구축하고 그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수 있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략적억제력을 굳혀나갈수 있게 하였다.

총결기간 이미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어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수소탄개발이 완성되였으며 2017년 11월 29일 당중앙위원회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포-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의 실현을 온 세상에 궁지높이 선포하였다.

기존상식으로는 20년, 3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의 완성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4년 만에 그리고 당 제7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만에 빛나게 실현한것은 력사에 다시없을 기적

이며 제7기 중앙위원회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후대들앞에 세운 가장 의의있는 민족사적공적으로 된다.

당중앙은 력사적인 2017년 11월대사변이후에도 핵무력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출없이 줄기차게 령도하여 거대하고도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였다.

보고는 당중앙이 더 위력한 핵탄두와 탄두조종능력이 향상된 전지구권타격로케트개발을 결심하고 이 력사적파업을 국방과학자들의 애국충성심에 의거하여 빛나게 관철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장에서 11축자행발사대차에 장착되어 공개된 새형의 거대한 로케트는 우리 핵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파타격능력을 남김없이 파시하였다고 확인하였다.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의 완성과 계속되는 발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조직령도력의 승리인 동시에 불굴의 자주적신념과 강용한 정신으로 불사신의 투쟁을 벌려온 국방과학자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보고는 총결기간 적들의 발악적인 군사력증강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과학부문에서 새로운 첨단무기체계를 련속 개발완성하도록 하여 우리국가의 군사기술적강세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되게하고 전쟁억제력, 전쟁수행능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데 대하여 총화하였다.

국방과학부문에서 세계병기분야에서 개념조차 없던 초강력다면발공격무기인 초대형방사포를 개발완성하고 상용탄두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전술로케트와 중장거리순항미싸일을 비롯한 첨단핵전술무기들도 련이어 개발함으로써 믿음직한 군사기술적강세를 들어쥐였다.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세계적발전추이를 따라잡는 우리식의 주력땅크개발방향을 바로 정하고 생산공정을 일신하며 자기의 새로운 발전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반항공로케트종합체, 자행평곡사포, 반장갑무기들도 세계적수준에서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보고에서는 총결기간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 다탄두개별유도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신형탄도로케트들에 적용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전투적사명의 탄두개발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되었다.

또한 중형잠수함무장현대화목표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시범개조하여 해군의 현존수중작전능력을 현저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새로운 해잠수함설계연구가 끝나 최종심사단계에 있으며 각종 전자무기들, 무인타격장비들과 정찰탐지수단들, 군사정찰위성설계를 완성한데 대하여서와 이밖에도 우리 군대를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강군으로 도약시키는데서 거대한 의미를 가지는 국방연구성과들을 달성한데 대하여 궁지높이 공개되었다.

국방과학부문, 군수공업부문에서 이룩된 대담한 도약은 우리의 국가방위력을 세계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운 동시에 전반적조선혁명을 상승시키기 위한 당중앙의 전략적구상실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고는 평가하였다.

보고에서는 총결기간 인민군대를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총화되었다.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두 전선에서 위훈과 기적을 떨치며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가장 침예하고 준엄했던 지난 5년간 철벽의 경계근무와 전투동원태세로 조국의 령토, 령공, 령해를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적들의 도발위협을 단호히 제압하며 사회주의건설의 평화적환경을 수호하였다.

총결기간 당중앙위원회는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빛나게 완성하고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커다란 전면을 가져옴으로써 우리 나라를 명실공히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시키였으며 대국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들던 시대를 영원히 끝장내였다.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존엄높은 강대한 나라에서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번영과 행복을 마음껏 창조해나갈수 있게 한것이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제7기 중앙위원회가 당대회결정판철에서 이루한 가장 뜻깊고 궁지높은 대승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총결기간 공화국의 대외적지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데 대하여 총화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는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한 이후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여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높은 경지에 옮겨세웠다.

미국의 발악적인 공세와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의 필사적인 압박봉쇄책동으로 하여 총결기간 우리 공화국을 둘러싼 대외환경은 건국이래 류례를 찾아볼수 없이 엄혹하였다.

최악의 형세속에서 당중앙위원회는 자주적대를 더욱 강하게 견지하면서 나라의 최고리익과 존엄을 전드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하고 혁명적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공화국의 자주권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자주권존중을 떠난 우리와의 관계개선이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것을 만천하에 각인시키였다.

당중앙위원회는 대담한 로선전환과 공격적인 전략으로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평화의 기류를 조성하고 대화분위기를 마련하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를 높이기 위한 령활한 대외활동을 조직령도하였다.

보고는 우리 당이 오랜 혁신적뿌리를 가진 특수한 조중관계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음으로써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친선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된 조중 두 당, 두 나라인민들사이의 형제적우정과 단결을 계속 이어가야 할 시대적요구로부터 당중앙은 5차례의 조중

수뇌회담을 통하여 전략적의사소통과 호상리해를 깊이하고 두 당사이의 동지적신뢰를 두터이 함으로써 조중관계를 새롭게 강화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조로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중시하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외활동을 진행하여 로씨야와의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꾸바와의 평양수뇌상봉과 웨남파의 하노이수뇌상봉을 통하여 사회주의위업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에서 맷어지고 검증된 쌍무관계를 특수한 동지적관계, 전략적관계로 승화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파의 단결과 련대성을 비상히 강화하였다.

당중앙위원회가 진행한 적극적인 대외활동들은 국제적판도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강력히 추동하고 자주와 정의, 평화수호의 새로운 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는 우리 당과 국가의 지위와 위신을 크게 파시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총결기간 조미사이의 혁학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홀륭히 파시하였다.

적대적인 조미관계사상 처음으로 열린 두 나라 최고수뇌들의 직접회담에서 당중앙은 강한 자주적대를 가지고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확약하는 공동선언을 이루어내였다.

초대국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의 자주적리익과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는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만천하에 시위한 여러차례의 조미수뇌회담은 세계정치사의 특대사변으로 되였다.

총결기간 당중앙위원회는 우리 인민의 굴할줄 모르는 투철한 자주정신과 공화국이 비축한 위대한 힘에 의거하여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위상을 크게 옮겨세웠으며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권위, 위대한 우리 인민의 지위를 상징하고있다.

보고는 령토와 인구도 그리 크지 않고 제국주의 반동들의 사면포위속에 들어있는 우리 공화국

의 대외적지위에서 비약적인 상승변화가 일어나게 된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으로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며 오직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밭들며 어렵고 간고할수록 당의 두리에 더 굳게 끽친 인민의 위대한 단결이 놓은 거대한 혁사적기적이라고 강조하였다.

2.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부단한 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확정하고 이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제8차대회가 내세운 중요한 과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둘째 체계에서 총결기간 경제문화건설과 국방건설, 국가사회관리, 근로단체사업정형에 대하여 결함과 교훈을 위주로 분석총화하면서 금후 새로운 전진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정형과 새 전망계획에 대한 업정하고도 상세한 분석을 하시였다.

보고에서는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데로부터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가 심중하게 총화되고 각 부문에 산적되어있는 부진상태와 그 원인에 대하여 지적되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영향을 미친 주객관적요인들을 분석하면서 우선 객관적요인으로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감행한 최악의 암적인 제재봉쇄책동의 후과를 들었다.

이밖에 해마다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와 지난해에 발생한 세계적인 보건위기의 장기화도 경제사업에 심각한 장애로 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로 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서 주요 경제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예견하였던 국가적투자들과 보장사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보고는 언급하였다.

보고는 객관적조건에 빙자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주체의 작용과 역할이 필요없게 되며 불리한 외적요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내밀수 없다는 결론에 떨어지게 된 다고 심각히 지적하면서 총결기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이 미달된 원인에 대한 당중앙 위원회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리였다.

당중앙위원회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과학적인 타산과 근거에 기초하여 똑똑히 세워 지지 못하였으며 과학기술이 실지 나라의 경제 사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비보강하기 위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실태를 분석하였다.

보고에서는 지금까지 만연되어온 그릇된 사상 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 무능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을 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나라의 경제를 추켜 세울수 없다는 총체적인 교훈이 언급되었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고 장려하는데로 확고히 전환하며 우리의 전진을 구속하는 낡은 사업체계와 불합리하고 비효률적인 사업방식, 장애물들을 단호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고는 이렇게 함으로써만 앞으로 달성하여야 할 국가경제의 전망 목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이 인민들에게 실제적인 복리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혁명사업으로 되게 할수 있다고 언명하였다.

보고는 앞으로의 5년간 경제분야에서의 투쟁 전략을 천명하였다.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의 경제전략은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서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사이의 유기적련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토대를 다지

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세우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총적방향은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것이다.

새로운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것으로 설정되었다.

보고는 국가경제의 현황과 잠재력을 기초하여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향상에 나아가는것을 목표로 하여 작성된 새로운 5개년계획을 상정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은 주요하게 내각이 나라의 경제사령부로서 경제사업에 대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제대로 감당하며 국가경제의 주요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정상화와 개전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적극 추동하며 대외경제활동을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보완, 보강하는데로 지향시키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새로운 5개년계획은 현실적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의 자립적구조를 완비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며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하였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다.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 사회주의건설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주요경제부문별 현황과 정비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구

체적으로 언급하시였다.

보고에서는 인민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며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선차적으로 추켜세워야 할 기간공업부문의 실태와 정비발전방향이 상정되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주체철생산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철강재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에 반영된 철강재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주요제철, 제강소들에서 현존생산공정들을 선진기술로 개조하고 에너르기절약형의 새로운 제철로들을 건설하여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철광석생산을 활성화하고 북부지구의 갈탄을 선철생산에 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할데 대하여 지적되였다.

보고에서는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명줄파도 같은 나라의 핵심공업인 화학공업의 발전방향이 언급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화학공업부문의 중심과업은 자체의 기술력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선행시키면서 나라의 화학공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화학제품생산을 훨씬 늘이는것이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의 전과정이 첨단기술의 명맥을 틀어쥐기 위한 과정으로 되게 하며 나라의 화학공업구조를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는 주체공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

보고에서는 자립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생산을 늘이는것을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기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전력공업부문의 기본과업은 당면한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증산투쟁을 전개하면서 생산토대를 전반적으로 정비보강하고 전망성있게 확대하여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것이다.

보고에서는 전망적인 수요, 앞으로의 주객관

적변화에도 대처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조수력발전소건설에 국가적힘을 집중하며 핵동력공업창설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계획들이 언급되였다.

보고는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국가적으로 석탄공업부문에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사업을 통이 크게 전개하고 강력히 추진할데 대한 문제, 석탄공업부문에서 탐사와 굴진을 선행시켜 채장들을 더 많이 확보할데 대한 문제, 유연탄공업발전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탄부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석탄증산을 위한 선결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석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들이 상정되였다.

보고에서는 기계공업을 전반적경제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해야 할 중요한 공업부문으로 규정하고 나라의 기계공업이 처해있는 현상황과 원인이 규명된데 이어 당면한 발전방향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기계공업부문의 기본과업은 나라의 기계공업을 기초가 든든한 공업으로 만들고 개발창조형의 공업으로 방향전환하는것이다.

기계공업부문에서 공작기계, 둔전기계, 건설기계, 전기기계, 채취기계, 류체기계들을 비롯한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기계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생산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국가경제의 정상적발전을 위하여 채취공업을 중시하고 추켜세울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채취공업부문의 기본과업은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생산적토대를 보강확대하고 유색금속과 비금속광물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는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질탐사부문의 력량을 강화하고 나라의 지하자원을 통일적으로 효과있게 개발리

용하기 위한 사업을 현실성있게 추진하며 채취 공업부문 광산, 제련소, 공장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림업부문에서 통나무생산과 산림 조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자체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통나무수요를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사업총화보고에 상정된 기간공업의 부문별 발전방향은 자립경제의 잠재력과 위력을 가일층 강화하여 전반적 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출로를 밝혀주었으며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확고한 정책적 담보를 마련한 것으로 된다.

보고에서는 교통운수부문의 현 실태와 뚜렷한 개선을 위한 과업들이 언급되었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철도운수부문의 기본 목표는 철도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수송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 철도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것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길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중량화하며 표준철길구간을 늘이고 나아가서 모든 철길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평양지하철도의 기술개건과 평양지하철도역 현대화공사를 다그치며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륙해운부문에서 세계적인 선박건조기술발전추세에 맞는 대형짐배를 계속 무어내며 자동차통합운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송지휘의 정보화를 실현하여 수송의 긴장성을 해소할데 대한 과업들이 제기되었다.

새형의 지하전동차와 무궤도전차, 궤도전차, 레일버스들을 비롯한 대중교통수단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총결기간 건설부문에서 이룩된 비약적인 발전과 성과가 평가되고 일련의 편향들이 지적되었으며 새로운 과업과 목표들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건설부문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것이다.

건설부문에서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건설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건설의 두 전선을 동시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건설부문에서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올해부터 해마다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년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건설작전과 지도를 짜고 들어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굴지의 유색광물생산기지이며 로동계급의 대부대가 살고있는 검덕지구에 2만 5, 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를 일떠세워야 한다.

전문건설단위들을 강력하게 꾸리고 건설기계 공장들에서 필요한 건설장비와 기공구들을 적극 개발생산하여야 한다.

보고는 건설이 전례없는 속도로 진척되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건재공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건재공업부문이 수행해야 할 기본과업은 800만t의 세멘트고지를 점령하고 마감건재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것이다.

현존세멘트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는 것과 함께 원료조건, 동력조건, 수송조건이 유리한 지구들에 능력이 크고 선진기술이 도입된 세멘트 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여 나라의 세멘트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면모를 결정하는 마감건재를 국내 생산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것과 함께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칠감과 외장재생산기지를 보다 튼튼히 꾸리고 그 질을 높이며 지붕재 생산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

세계적인 건축발전추세에 맞게 령탄소건물, 령에네르기건물을 많이 건설할 수 있게 필요한 건재생산준비를 예견성있게 착실히 추진하며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원료에 의거하는 여러 가지 건재생산기지들을 실리있게 꾸리고 다양한 건재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보고는 체신부문이 시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체신부문에서는 통신하부구조의 기술갱신을 다그치고 이동통신기술을 발전시켜 다음세대통신으로 빨리 이행하여야 한다.

유선방송과 텔레비죤방송체계를 정비하고 그 기술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며 도시로부터 두메산골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서나 인민들이 더 훌륭한 문화정서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고는 국영상업을 발전시키고 급양련의봉사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살리는 것을 현시기 매우 긴절한 문제로 상정하고 우리의 상업을 인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물질적 복리를 증진시키는 명실상부한 인민봉사활동으로 복원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현시기 우리 상업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는 상업봉사활동 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통제력을 회복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 상업의 본래를 살려나가는 것이다.

상업봉사단위들에서는 옳바른 경영전략을 가지고 상업봉사활동에서 인민성, 문화성, 현대성, 다양성을 구현하여 우리식의 새로운 사회주의봉사문화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보고는 국토관리와 생태환경보호사업을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한 중대사로, 나라의 장래와 관련되는 전략적인 사업으로 제기하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국토부문앞에 제시된 과업은 국토건설과 생태환경보호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가져옴으로써 온 나라를 사회주의선경으

로,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더 훌륭히 변모시키는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것이다.

산림을 비롯한 생태환경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장악하며 계절별, 연도별 변화상태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문제, 국토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법과 세칙들을 바로 제정하고 엄격히 시행하는 문제, 치산치수사업에 힘을 넣어 자연재해를 미리막는 문제, 도로건설과 관리에 계속 큰 힘을 넣는 문제, 국가적으로 동서해안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어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국토를 보호하고 나라의 해안연선을 해양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하는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보고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인민들의 생활파직결되어 있는 도시경영부문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해당한 과업들이 상정되었다.

도시경영부문에서 살림집보수대책을 강하게 세우며 먹는물생산능력을 확장하고 그 질을 개선하며 새로운 오수정화장들을 더 꾸려 환경오염을 없애야 한다.

원림설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공원과 유원지들을 아름답게 꾸리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화초, 지피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도시의 면모를 일신시켜야 한다.

보고에서는 대외경제사업의 실태와 나라의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한 데 기초하여 대외경제부문에서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외경제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나갈 데 대한 방향적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보고는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우리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하였다.

관광대상들을 보다 잘 꾸리고 그에 대한 소개전방법을 개선하며 관광로정과 안내도 다양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금강산지구를 우리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

고성항 부두에 있는 해금강호텔을 비롯한 시

설물들을 모두 들어내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잘 어울리면서도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전형적인 우리식 건축형식의 건물을 일떠세울데 대한 파업이 제시되었다.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에 따라 고성향해안관광지구와 비로봉동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와 체육문화지구들을 특색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에년차별로, 단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파업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우리 국가경제는 자립경제이고 계획경제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이다.

국가경제의 자립성과 계획성, 인민성을 강화하자면 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높이고 경제사업의 결과가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게 하는 원칙에서 생산물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의 근본요구, 근본방향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또한 원가저하와 질제고를 경제관리개선의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의 근본요구, 근본방향에 립각하여 경제를 정비하고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보고에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강을 바로세우고 국가적인 일원화통계체계를 강화하며 국가경제의 명맥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끝바로 전개하고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조건을 개선할데 대하여 언급되었다.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경제적효률을 높일수 있도록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며 경제부문들의 약한 고리들을 찾아내고 경제의 균형적발전에 절실한 부문들을 보강하여야 한다.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재정과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공간들을 옳게 리용하여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

보고에서 천명된 주요경제부문별 현황과 정비발전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과 명확한 방침은 자립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외적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경제건설을 계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실천적무기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인민들의 식의주문제해결에서 기어이 돌파구를 열고 인민들이 폐부로 느낄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하려는 우리당의 확고한 결심을 천명하시였다.

보고에서는 농업생산을 장성시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이 제기되었다.

농업부문앞에 나선 5개년계획의 중심목표는 당이 이미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고 농업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지는것이다.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종자혁명, 과학농사,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새땅찾기와 간석지개간에 힘을 넣고 농산과 축산, 파수를 발전시키며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를 중요한 전략적파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보고에서는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을 안전하게 장성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과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며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고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정책적문제들이 강조되었다.

농업부문에 제시된 중요목표들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어서라도 달성하여야 할 국가중대사이다.

보고에서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제공하는데서 절대적인 몫을 차지하는 경공업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이 언급되었다.

경공업부문에서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 주되는 방향으로 틀어쥐고 현대화

를 다그치며 약한 부분과 공정들은 보강하고 없는 부분과 공정들은 갖추면서 부단히 살을 불일예 대한 파업이 제시되었다.

또한 선진후량의 원칙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며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도 강조되었다.

보고는 수산부문을 인민들의 식생활과 직결된 3대부문의 하나로 규정하였다.

수산부문에서는 고기배와 어구를 현대화하고 물고기잡이를 과학화하며 수산사업소들과 선박수리기지들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며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 수산물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시, 군들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문제들이 제시되었다.

시, 군을 거점으로 하여 혁명진지를 다지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을 추진하는것은 우리당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방침이다.

시, 군은 우리당정책의 말단집행단위이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거점이며 나라의 전반적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이다.

보고에서 천명된 시, 군강화의 총적인 목표는 모든 시, 군들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국가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것이다.

시, 군들에서는 자기의 지역적특성에 부합되는 발전전략과 전망목표를 현실성있게 잘 세우고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년차별로 완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 힘을 넣어 농촌특유의 문화발전, 우리식의 새로운 발전을 이루하여야 한다.

농촌건설의 전망목표는 농촌에서 3대혁명을

다그치고 사회주의농촌체제를 철저히 판철함으로써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애는것이며 당면파업은 농업근로자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우고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하며 농촌마을들을 지역적특성이 살아나게 균형적으로 건설하는것이다.

보고는 농촌핵심진지를 강화하는데 당적, 국적주목을 돌릴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였다.

지방경제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당 지역의 원료와 자재를 리용하여 발전시키는것을 일관한 정책적요구로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시, 군소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사업을 밀고나가며 도시경영사업과 치산치수, 환경보호사업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에서는 시, 군당위원회, 인민위원회들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강력한 견인기가 되고 시, 군의 안주인, 자기 지역안의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가 될데 대한 파업이 제기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존립의 초석이며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 평화수호의 믿음직한 담보인 국가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혁명적립장을 염숙히 천명하시였다.

보고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지역의 긴장격화를 막기 위하여 우리당과 공화국정부가 선의의 노력과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하였지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약화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해진데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리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첨단무기들이 늘어나고있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자기의 힘을 부단히 키우지 않고 무사태평하게 있는것보다 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짓은 없다.

현실은 국가방위력을 순간도 정체함이 없이 강화하여야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억제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보고는 강력한 국가방위력을 결코 외교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추동하며 그 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고 강조하면서 조성된 정세속의 현실은 군력강화에서 민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침략전쟁위험이 계속되는 한 우리 혁명무력의 역사적사명은 절대로 변할수 없으며 우리의 국가방위력은 새로운 발전의 궤도를 따라 부단히 강화되어야 한다.

보고는 인민군대가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종적임무로 들어쥐고 조선로동당화된 혁명적당군으로, 첨단화된 현대적인 군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의 믿음직한 수호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나갈데 대한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보고에서는 국방공업을 비약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중핵적인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과업들이 언급되었다.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핵탄두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핵위협이 부득불 동반되는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각종 군사적위협을 주동성을 유지하며 철저히 억제하고 통제관리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1만 5, 000km 사정권안의 임의의 전략적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하는데 대한 목표가 제시되었다.

가까운 기간내에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개발도입하는데 대한 과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켓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시키며 핵장거리타격능력을 제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하는데 대한 과업이 상정되었다.

가까운 기간내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하여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확보하며 500km 전방중심까지 정밀정찰할수 있는 무인정찰기들을 비롯한 정찰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한 최중대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데 대하여서도 언급되었다.

보고는 국방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첨단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여 인민군대를 재래식구조에서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비약발전시키는것을 현시기 국방과학부문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으로 규정하였다.

무장장비의 지능화, 정밀화, 무인화, 고성능화, 경량화실현을 군수산업의 중핵적인 목표로 정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여기에 지향시켜야 한다.

보고에서는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는데서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는 중대한 사업인 전민항전준비를 완성할데 대한 심도있는 과업이 언급되었다.

보고에서 제기한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중대과업들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분별없는 군비증강으로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있는 실정에서 이 땅에서 전쟁접경과 완화, 대화와 긴장의 악순환을 영원히 해소하고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이라는 말자체가 종식될 때까지 나라의 군사적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철의 신념과 의지의 표명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갈데 대한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보고는 과학기술발전을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중핵적인 과제, 최선의 방략으로 규정하고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과정에 발로된 편향들이 전면적으로 분석되었으며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에 달성하여야 할 각 부문의 과학기술발전목표들과 실행방도들을 언급하였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서 나서는 긴절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며 핵심적이며 선진적인 첨단기술개발을 촉

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당적, 국가적, 행정적지도와 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과학연구성과를 서로 공유하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총결기간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결함과 교훈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문화의 새로운 개화기를 마련하여 인민들을 새 세기 우리 식의 문명으로 인도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원대한 목표이며 리상이다.

보고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고 전진하는 혁명에 활력을 더해주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뜻을 달고있는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부문의 총결기간 사업정형이 분석 평가되었다.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되게 할데 대한 교육의 종적목표가 다시금 간곡히 언급되고 새 세기 교육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조국을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교육발전목표와 구체적인 과업들이 상정되었다.

중등 및 고등교육부문에서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수관리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교육혁명의 담당자인 교원들의 능력과 자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건설을 비롯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사회주의보건을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인민보건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상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언급되었다.

보건부문에서 치료예방기관들과 제약 및 의료기구공장들을 개건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보건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어떤 세계적인 보건위기에도 대처할수 있는 방역기반을

튼튼히 축성하여야 한다.

보고는 또한 총결기간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심각히 분석하고 문학예술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주체문화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펼치기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문예부문 창작지도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높은 안목과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발휘하여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이 구현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고 특색있는 공연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후비육성사업을 옳바른 체계와 발전전략, 뚜렷한 발전목표를 가지고 목적지향성있게, 전망성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출판보도부문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격변기, 고조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신문혁명, 보도혁명, 방송혁명, 출판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당대회가 제시하는 사상과로선, 정책의 진수를 전체 인민들에게 깊이 심어주고 당대회 결정판철에 총궐기, 총발동시키기 위한 보도전, 언론전을 힘있게 전개하며 체육부문에서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권위와 지위에 맞게 과감한 분발로 우리 나라를 체육선진국대열에 들어서게 할데 대한 과업들이 제기되었다.

사회주의문화건설의 혁신적인 방향들은 총결기간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 결함과 교훈을 전진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조선식문명을 창조하려는 웅대한 구상의 반영으로 된다.

보고에서는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현상을 쓸어버리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내밀어 사람들의 정신도덕생활령역에서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자기의 것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우리 식의 고상하고 문명한 새생활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대중적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공

화국의 지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혁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고 있는 현실에 상응하게 국가사회 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보고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특성에 맞게 국가의 인민적성격을 강화하고 통일적, 과학적, 전략적관리를 실현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고 사법검찰, 사회안전, 보위 기관들이 사회주의제도의 믿음직한 보위자로서 제도보위, 정책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갈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당의 인전대이며 외곽단체인 근로단체조직들을 위력한 정치조직,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힘으로 강화할데 대한 중요한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보고에서는 근로단체조직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본분에 맞게 동맹내부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전동맹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특히 청년동맹을 당의 교대자, 후비대로 역세계 준비시킬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의 진로를 명시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는 조성된 형세하에서 경제와 국방, 과학기술과 문화건설을 비롯한 국가사업전반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다음단계의 새 승리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로 된다.

3.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셋째 체계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보고는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북남관계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보고에 지적된바와 같이 지금 우리 민족은 북남관계의 심각한 교착상태를 수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의 위험속에 계속 분렬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북남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선언발표이전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

남조선에서는 의연히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적대행위와 반공화국모략소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보고는 북남관계의 현 랭각국면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소될 일도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진정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 민족의 운명과 후대들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이 엄중한 상황을 더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는 북남관계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보고에서는 지난 시기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일시에 얼어붙고 대결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된 주된 원인에 대하여 지적되였다.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 한 인상을 주고있다.

첨단군사장비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안정을 보장할데 대한 북남합의리행에 역행하고 있다.

지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권에 속하는 각종 상용무기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발》이라고 결고들면서 무력현대화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를 시비하려면 첨단군사자산획득과 개발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느니, 이미 보유한 탄도미싸일과 순항미싸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곳까지 날아가는 미싸일을 개발하게 될것이라느니, 세계최대수준의 탄두중량을 갖춘 탄도미싸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것이고 계속되는 첨단공격장비반입목적과 본심을 설득력있게 해명해야 할것이다.

보고는 남조선당국이 이중적이며 공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고관점을 가지고 《도발》이니 뭐니 하며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려 할 때에는 우리도 부득불 남조선을 달리 상대해줄수밖에 없게 될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판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것이다.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으며 대가는 지불한것만큼, 노력한것만큼 받게 되여있다.

보고는 지금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만큼, 북남합의들을 리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는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수도 있을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종적방향과 정책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보고는 현 국제정세와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 환경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총결기간 우리 당 대외활동의 주되는 총화와

결론은 불법무도하게 날뛰는 적대세력들과 강권을 휘두르는 대국들에 대하여서는 강대강으로 맞서는 전략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는 이에 대하여 확인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에 상응하게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정치외교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것을 현시기 대외사업의 종적방향으로 규정하였다.

여기로부터 보고는 대외사업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였다.

우리 당의 존엄사수와 국위재고, 국익수호를 공화국외교의 제일사명으로 틀어쥐고 대외활동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우리 국가의 정상적발전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외교전을 공세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보고는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대외사업부문에서 대미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고 반제자주력량파의 현대를 계속 확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대외선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적들의 반동적공세를 짓부시고 국가의 위상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보고는 대외사업부문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시키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혁명적당들과 진보적당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적범위에서 반제공동투쟁을 파감히 전개하여 국가의 대외적환경을 더욱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에서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되었다.

이 행성에 우리 나라처럼 항시적인 전쟁위협

을 받고있는 나라는 없으며 그만큼 평화에 대한 우리 인민의 갈망은 매우 강렬하다.

우리가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비축하고 끊임없이 강화하고있는것은 우리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서이며 영원히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놓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토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선것만큼 앞으로 조선반도의 정세격화는 곧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어질것이다.

보고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것이라는 우리 당의 입장장을 염숙히 친명하였다.

또한 우리 공화국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람용하지 않을것임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대외정책적립장이 명시됨으로써 새 총결기간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와 국제적영향력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는 전략전술적지침이 마련되었다.

4. 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넷째 부분에서 총결기간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총화하시고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파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보고는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수립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이 비상히 강화되었으며 당의 기초를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비강화한것이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거둔

귀중한 성과이라고 평가하였다.

보고에서는 우리 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리념으로 하는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히 여온데 대하여서도 강조되였다.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때 그 어떤 장애와 난관이 가로막아도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속에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언제나 배심든든히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다는 바로 이것이 지난 5년간 당사업의 주되는 총화이며 귀중한 경험이다.

보고에서는 우리 혁명이 새로운 발전기, 도약기에 들어선데 맞게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과 방도들이 언급되였다.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계속 심화시켜나가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천명하였다.

보고에 언급된바와 같이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중앙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백방으로 옹위하여야 하며 그와 어긋나는 자그마한 요소에 대해서도 융화목파하지 말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며 특히 령도업적 단위, 현지지도단위들을 잘 꾸리고 당정책관찰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에서 당의 방침집행을 위한 조직사업과 장악총화사업을 짜고들어 철저히 관찰하여야 한다.

보고는 당내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당파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지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상정하였다.

보고에서는 당의 기본핵심력량이고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며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부단히 강화할데 대하여서와 당장성사업에서 당적원칙, 객관이 인정하는 엄선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당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또한 당의 기층조직인 초급당과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당사업의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실속있게 할데 대하여, 군중파의 사업에 품을 들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사업은 혁명을 령도하는 당의 기본임무의 하나이며 혁명과 건설을 이끄는 전기간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보고는 당사업에서 유일관리제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과 함께 당선전부문에 내재하고 있는 고질적인 결함을 극복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보고에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 정책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과업이 언급되고 해당 단위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위원회를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당조직들에서 당결정을 정확히 채택하고 무조건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한 문제, 당조직들에서 행정대행, 추미주의를 철저히 경계하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였다.

보고는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우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불합리한 당사업체계와 방법들을 개선해나가며 또한 우리 당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당사업을 친인민적, 친현실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당사업에서 친인민성, 친현실성이 참답게 구현될수록 전당이 진실과 진리에로 더 접근하게 될것이며 우리 당의 전투력은 배가될것이라는것이 보고에 제시된 중요한 사상이다.

보고는 우리 당에 있어서 현시기 가장 경계하고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삼아야 할 파역은 세도와 판료주의, 부정부패행위이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고 당조직들에서 그 사소한 요소와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할데 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보고는 당안에서 비판과 사상투쟁, 학습을 강화하며 직능대로 일하는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당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도 당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로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의 마지막부분에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하여 우리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 그 원인과 교훈들에 대하여,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구체적인 방도에 대하여 심도있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집체적인 토의를 거쳐 공통된 견해에 기초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을 확정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대표자들이 우리 당의 령도사상에 립각하여 높은 당적책임감을 가지고 제기된 내용과 문제들을 깊이 연구토의할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비약과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당과 혁명의 전반사업을 새로운 양양에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지침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보고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였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창창한 전도를 확신성있게 기약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는 위대한 사상과 령도력으로 주체혁명을 가장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향도하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년대기에 불멸의 기념비로 끝없이 빛을 뿐릴것이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는데 대한 정중한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김정은동지는 천재적인 사상과 리론적 예지와 비범한 특출한

령도력, 숭고한 풍모를 지니시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신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존엄 높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상징이시고 대표자이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건설사상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세부적으로,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당을 명실공히 혁



명의 강력한 정치적 참모부, 정예화된 강철의 전위대오,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짧은 혁사적기간에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는 민족사상 가장 특기할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에 관한 위대한 실천강령들과 전략전술적지침들이 풍부히 마련되고 주체조선의 제일국력인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다져졌으며 혁명의 계승자대오가 튼튼히 준비되고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인민적 성격이 더욱 뚜렷해지게 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령활한 군령도로 공화국무력을 불패의 혁명적 당군, 최정예강군으로 비상히 강화하시고 국가핵무력완성의 혁사적 대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우리 국가방위력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넘볼수 없게 자위의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강

화하시여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신 김정은동지의 업적은 민족만대를 두고 길이 칭송할 만고절세의 애국공적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전반을 정비보강하고 인민경제의 자립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고 조국땅우에 자력자강의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비약, 대혁신의 시대를 펼치시였다.

인민을 위한 고생, 인민을 위한 창조를 더없는 락으로, 혁명하는 멋으로 여기시며 인민을 위한 멀사복무의 력정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김정은동지의

현신적인 령도의 길에서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과 생명안전을 위한 가장 우월한 시책들이 복원되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별천지들이 솟아났다.

혁명의 중하를 다 걸어지시고 조국과 민족앞에 만고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인민들에게 돌리시며 위대한 인민, 고마운 인

민이라고 높이 내세워주시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인민 모두가 심장으로 우러러따르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혁명의 대성인이시다.

김정은동지는 비범한 외교지략과 령활한 대외활동으로 자주와 정의, 평화를 수호하시며 세계정치흐름을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주도해나가고계신다.

주체혁명의 유일무이한 계승자이시고 령도자이시며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수반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는 것은 시대와 혁사의 엄숙한 요구이고 전체 당원들의 총의이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승리적 전진을 위하여 전체 대표자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일치한 의사와 소원을 반영하여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 *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전원회의가 1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당 제8차대회에서 선거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도, 시, 군당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를 수위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개정된 당규약에 따라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를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당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 책임주필을 임명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또한 당안에 새로운 규률감독체계를 내올데 대한 의제를 중요하게 연구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규률을 강화하는 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이 자기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고 하시



면서 당안에 당규약과 당정책을 엄격히 리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을 뿌리뽑자면 규률감독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당 제8차 대회에서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도록 한 것은 전당에 엄격한 규률과 혁명적기강을 세워 우리 당을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당중앙검사위원회가 당안에 중앙집권적규률을 더욱 강하게 세우고 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특세, 전횡을 비롯한 일체 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당의 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하도록 임무를 새롭게 규제한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전원회의는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고 당안의 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조사사업을 전문으로 맡아보게 한데 맞게 그 실현을 담보

하는 기구적대책으로서 집행부서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도, 시, 군당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당규률문제를 전임하는 부서가 나오고 자기 활동을 시작하면 당조직규률에 위배되거나 도전하고 규약과 직능을 위반하는 현상들과 혁명적당풍을 흐리게 하는 온갖 현상들이 많이 억제되게 될것이라고 전원회의는 분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규률감독사업을 맡아보는 부서가 견지하여야 할 사업원칙과 방법, 기본파업들을 명시하시면서 국가규률과 법집행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당적지도도 강화하여 당과 국가의 규률을 세우는 사업을 통일적으로, 동시에 밀고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규률위반문제와 신소청원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당과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을 보위하고 튼튼히 다지는 견지에서 사업을 작전하고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결론

친애하는 대표자동지들!

우리 당력사에서 여덟번째로 열린 본 대회는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놓기 위한 당면투쟁계획과 당의 강화발전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을 상정하고 진지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먼저 제7기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립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총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한 새로운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문제들을 심도있게 토의하였습니다.

보고와 토론, 부문별협의회들에서는 당과 국가, 군대사업으로부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내재하고있는 편향과 결함들이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비판총화되었으며 그를 극복하기 위한 엄숙한 결심과 의지들이 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에 달성하여야 할 목표와 과업들을 놓고 그 수행방도를 찾기 위한 연구와 토의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 제기된 건설적인 의견들이 당대회결정서초안작성위원회에 종합되었습니다.

첫째 의정에 대한 토의를 통하여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보다 선명해졌으며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방략들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지난 시기의 당대회들과는 달리 이번 대회에서 자기 사업을 긍정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비판적인 견지에서 랭정하게 분석총화한것은 총결기간에 거둔 성과들에 못지

않는 큰 의의를 가집니다.

본 대회에서는 제7기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도 비판적으로 엄정히 진행하였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지난 시기의 낡은것, 현실과 맞지 않은 문제들을 당건설원리에 맞게 우리식으로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조선로동당규약을 당건설과 당사업의 원리, 현실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대회가 제8기 당중앙위원회를 당과 혁명에 충실히하고 실무능력이 높은 동지들로 꾸리고 당안에 새로운 규률감독체계를 수립한 것은 우리당이 혁명의 강력한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됩니다.

대표자동지들!

본 대회에서 나는 전체 대표자동지들과 전당의 당원동지들의 두려운 신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의 최고령도직책을 또다시 받아안았습니다.

모든 당원동지들이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총비서의 중책을 맡겨준데 대하여 나는 최대의 영광으로 받아안으면서도 송구스러움과 무거운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을 대표하고 책임진다는 성스러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것이며 위대한 우리인민을 내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현신의 길에 결사분투할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체 대표자동지들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으로 선거된 제8기 당중앙위원회는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높은 기대와 신임에 부응하여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정확하고도 세련된 자기의 령도력을 발휘하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할것입니다.

대표자동지들!

오늘 우리 혁명의 외부적환경은 의연 준엄하고 첨예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혁명사업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조건과 시련속에서 남들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우리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이제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당과 혁명대오, 국가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속적인 전진발전의 길에 속히 들어서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루해나가자는것이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의 내부적힘을 전면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재편성하며 그에 토대하여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면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것이 본 대회를 통하여 재확인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의지입니다.

우리 혁명앞에 나선 종대한 역사적과제는 전당이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다시 깊이 새기고 더 높이 들고나갈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위천에는 전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절대불변한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당풍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우리 당의 항구적인 요구가 반영되어있으며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에는 우리 혁명의 생명선과 전진동력에 관한 사상리론적관점과 정책적요구가 함축되어있습니다.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의 향도력을 높일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고 우리 당이 군중속에 더 깊이 뿌리박기 위한 근본방도가 있으며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나가고 앞길을 개척할수 있는 근본답보가 있습니다.

나는 이번 당대회에서 그 어떤 요란한 구호를 내드는것보다도 우리 당의 숭고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 3가지 리념을 다시 깊이 새기는것으로써 당 제8차대회의 구호를 대신하자는것을 제기합니다.

전당이 새로운 로정을 시작할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 열정을 안고 당대회가 가리킨 역사적진군방향을 향해 용감하게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오늘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있는 현 난국을 타개하고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향상시키며 자력부강, 자력반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자면 제일 걸리고있는 경제문제부러 시급히 풀어야 합니다.

우선 경제전선의 주격방향을 바로 정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

건적고리로 틀어쥐고 기간공업부문들사이의 유기적련계를 강화하여 실제적인 경제활성화를 추동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도리를 향상시키고 경공업부문에서 원료의 국산화비중을 높여 인민생활을 한계단 옮겨세우는것입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부러 정상궤도, 활성화단계에 확고히 옮겨세우기 위한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며 그에 토대하여 다른 부문들도 다같이 추켜세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발전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국가적인 경제조직사업을 잘 조직해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력을 탄산없이 여기저기 분산시킬것이 아니라 철강재생산과 화학제품생산 능력을 대폭 늘이는데 최대한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경제작전과 지휘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경제사업을 인민생활의 편파성없는 안정향상을 이루해나가는데로 지향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기본은 농업생산에 계속 힘을 넣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기본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농업부문에서 더욱 분발하여 들고일어나고 국가적인 투자를 늘여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2~3년여간에 해마다 국가의 무수매계획을 2019년도수준으로 정하고 반드시 달성을 전망적으로 수매량을 늘여 인민들에게 식량공급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에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소비품생산을 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

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 원료, 자재를 대주는 모든 부문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국가적인 경제기술적대책을 강력히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찾고 어김없이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당대회는 지난 총결기간의 교훈에 비추어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따져보고 현실에 최대한 접근시켜 실현가능한 새로운 투쟁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앞으로 조성될수 있는 조건과 환경들을 예견성있게 판단하면서 단계별, 연차별계획부러 잘 세워놓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단위들에서 일단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그 집행을 위한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작전과 지휘를 실현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하며 국가적으로 인민경제계획수행 정형을 지표별로 엄격히 장악추진, 총화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성패는 경제관리를 어떻게 개선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중앙당 경제부서들과 내각, 국가계획위원회,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합심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시범적으로 연구도입되고있는 방법들과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잘하고있는 단위들의 경험들을 결부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되면서도 최량화, 최적화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경제관리방법들을 연구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합니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밑에 경제를 움직이는 체계와 질서

를 복원하고 강화하는데 당적, 국가적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당대회이후에도 특수성을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지도에 저해를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어느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생산을 장성시키는 견지에서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적련계와 협동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경제조직과 지휘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실제적인 발전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이며 국가경제의 주되는 발전동력입니다.

과학기술부문에서는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계획을 달성을하기 위한 종점과제, 연구과제들을 과녁으로 정하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한단계 옮겨세워야 하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부터 모가 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지방경제를 끌어올리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을 비롯한 시, 군인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뒤떨어져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지방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을 돌리자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해마다 모든 시, 군들에 세멘트 1만t씩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시, 군이 자체의 경제적토대를 원만히 갖출수 있도록,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특혜조치도 취해주면서 정확한 지도와 방조를 따라세워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고 국가적지원을 늘여 농촌진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농업생산의 물질 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농촌을 문명하고 부유하게 전변시켜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교육과 보건을 발전시키는데 국가적인 힘을 넣어 중앙이나 지방이나 할것없이 사회주의교육제도와 보건제도의 우월성이 실지 인민들의 피부에 가닿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으로 강력한 교양과 규률을 앞세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들과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세외부담행위와 온갖 범죄행위들을 견결히 억제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가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겠습니다.

핵전쟁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것을 다해야 합니다.

인민군대를 최정예화, 강군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그 어떤 형태의 위협과 불의적인 사태에도 국가방위의 주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국방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옮겨세우며 군수생산목표와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여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우리 당의 력사적진군을 최강의 군사력으로 담보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전당의 당조직들이 충성의 전위대오로 튼튼히 꾸려지고 혁명적으로, 진취적으로 사업하며 해당 단위의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때 당과 혁명발전의 위대한 전성기가 열려지게 됩니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당내부사업에 주력하여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정간화, 정예화하고 당생활지도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함으로써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부단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이 일하는 당, 투쟁하는 당, 전투력 있는 당으로 될수 있게 전당에 정연한 당사업체계를 세우며 참신한 당사업방법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이 들고일어나 새로운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본때있게, 박력있게 벌리며 해당 단위 사업의 방향타역할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경제실무에 빠져 행정대행을 하는것과 같은 현상들을 라파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당적방법,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 정치적방법으로 풀어나가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이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당적지도, 정책적지도를 면밀하고 공세적으로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전진하는 대오의 최전방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일군들의 능력과 역할에 한개 단위, 한개 부문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인 중첩되는 난

관과 시련, 우리 세대에 맡겨진 강국건설대업은 일군들이 만짐을 지고 비상한 사업능력과 열정, 투신력을 발휘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과 국가의 고민과 걱정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피라게 애쓰는 일군, 오직 혁명밖에, 일밖에 모르고 인민을 위해 무엇인가 해놓겠다고 뛰여다니는 일군, 과업을 맡겨주면 눈에 띄게 일자리를 푹푹 내는 일군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모든 일군들은 자신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실지 사업능력과 실적으로 평가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당대회이후 장엄한 로정의 첫시작부터 잡도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누구나 인민의 기대를 순간도 잊지 말고 하루하루를 떳떳이 량심적으로 총화지울수 있게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모으면 하심하게 배우고 능력이 딸리면 밤을 패면서라도 수준을 높이며 사업에서 자만과 담보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자기자신에게 부단히 요구성을 높이면서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혁명적인 개선을 가져와야 합니다.

전당의 당원들이 당대회가 제시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이 분발하고 들고일어나 오늘의 고난을 앞장에서 맞받아 뚫고나가면 극복 못할 난관, 절령 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전체 당원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영웅적투쟁으로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고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전후복구건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해제끼 전승세대의 넋과 정신을 이어받아 제일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마다에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합니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성스러운 투쟁목표

와 과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는데서 새로 선거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전체 대표자동지들의 어깨에 지워진 임무가 제일 무겁습니다.

새로 선거된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당원들과 인민들의 고귀한 믿음과 기대를 순간도 잊지 말고 당대회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충실한 사업결과를 만들 어내야 합니다.

모든 대표자동지들은 맡은 초소와 일터에서 자신들이 직접 토의결정한 당대회과업들이 드림없이 실천되도록 하는데 훈심을 다 바치고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과 혁명의 절박한 요구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대표자동지들은 당대회사상과 정신을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고 이신작착의 모범으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자기부문, 자기 단위 사업에서 뚜렷한 발전을 가져와야 할것입니다.

대표자동지들!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며 혁혁한 전진을 이루려면 보다 힘겨운 정면돌파전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이제 적대세력들은 더욱 미친듯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할것이며 세계는 우리당의 정치선언과 투쟁강령이 어떻게 실현되어나가는가를 지켜볼것입니다.

당의 구상과 결심을 철저한 행동실천으로 받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불라는 충성심과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힘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모두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의 빛나는 실현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폐회사

친애하는 대표자동지들!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 식 사회주의 건설행로에서 매우 관건적인 시기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전체 대표자동지들의 높은 열의에 의하여 상정된 모든 의정들을 충분히 토의결정하고 자기의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대회기간 전체 대표자동지들은 최대의 당적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문제토의에 성실히 림하였으며 건설적인 의견들을 적극 제기하고 의사율 일치시키면서 일하는 당,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전투적면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당적으로 중요한 정치적인 모임들과 대회합들을 많이 가지었고 그때마다 당중앙의 정책사상을 접하는 참가자들의 열의가 매우 좋았지만 이번 당 제8차대회와 같이 만족증이 문제토의에 심취되고 열중하는 이런 비상한 참가열의는 처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전체 대표자들이 어느 누구라 할것없이 우리 혁명사업의 성패와 자기자신의 운명, 자식들의 운명과 결부시켜 고심하고 걱정하면서 토의되는 모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연구하였으며 긴장한 대회사업에 정열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대표자동지들이 대회를 지켜보는 우리의 수백만 당원동지들과 수천만 인민들의 기대어린 마음과 시선을 항상 자각하면서 혁명사업의 전진과 발전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떠안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힘

있는 우리의 투쟁방향과 전략전술을 확정함에 혼심을 기울인데 대하여 매우 감동되었고 여기에서 큰 힘을 얻었으며 이를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 제8차대회가 확정한 혁명적인 로선과 당면투쟁계획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우리 앞날에 대한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고 대중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으로 불러일으킬것이며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전반에 대한 령도력을 높이는데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대표자동지들!

이번 당 제8차대회를 통하여 겹쌓이는 도전과 시련속에서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치고 새로운 투쟁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비약하는 우리 당과 인민특유의 단결력과 혁명적열정이 다시한번 힘있게 분출되었습니다.

당 제8차대회를 보위하기 위하여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은 자기의 일터와 초소를 굳건히 지키였고 전례없는 사업성과로써 이번 당대회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나는 당 제8차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고도의 긴장성을 견지하며 무한한 혁신성과 혁명성을 발휘한 전체 당원동지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에게 본 대회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자동지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승리에 대한 자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기아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부강발전을 이룩해나가려는 혁명가들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시위한 투쟁과 전진의 대회로 되었습니다.

대회는 예민한 국내외정세의 변화와 그것이 우리 혁명에 미치는 주객관적환경에 대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고 지난 5년간의 사업을 정확히 총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성된 새로

운 환경과 혁명정세에 립각하여 국가경제로 대의 재정비와 발전 그리고 국가사회제도의 공고화를 위한 과학적이고 옳바른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함으로써 당과 국가전반사업의 전진방향을 명확히 밝혀주었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의 전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한것으로, 명백한 리정표를 세운것으로 되며 따라서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을 힘있게 견인하는 계기점이 되였다고 확신합

니다.

우리 당 제8차대회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도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로상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공정을 거친 우리들은 우리 투쟁에 대한 자신심과 자부심으로 어느때보다도 충만되어있으며 우리들스스로가 걸어진 책임의 중대함을 다시한번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대회결정은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 전술이며 조선로동당이 혁명과 인민앞에 한 서약인 동시에 위대한 우리 인민이 당중앙위원회에 준 지상의 명령입니다.

우리 당원들, 대표자동지들은 당대회결정을 이런 승고한 관점으로 대하고 무겁고 영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비롯하여 본 대회가 결정한 과업들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전도가 좌우되게 됩니다.

우리는 당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혁명을 다시 한번 고조시키고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안정된 생활조건과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전당적인 학습을 조직하여 대회가 확정한 투쟁과업과 임무를 철저히 접수하고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단계에로 이행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각급 당조직들은 당대회문헌과 결정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집중학습을 조직하고 그 관철을 위한 토의사업과 조직정치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전술을 치밀하게 세우고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당원대중의 심장을 먼저 발동시켜 그들이

선구자적인 투쟁으로써 집단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에로 이끌어나가도록 하며 모든 단위, 온 나라가 당대회결정관철로 끓어번지게 하여야 합니다.

새로 개정한 당규약에 대한 전당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사업과 당생활의 모든 공정과 계기들에서 당규약상 규범을 준수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표자동지들!

우리앞에는 의연히 무수한 시련과 난관이 도전해오고있으나 우리의 결심은 확고하고 미래는 밝관적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언제나 변함없이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무한히 충실향할것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함에 전력을 다해나갈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백전백승의 기치로 높이 추켜든 조선로동당이 혁명과 건설을 정확하게 령도하고있고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힘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내고 줄기차게 전진하게 될것입니다.

모두다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둉쳐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갑시다.

나는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원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높은 전투력과 단결력, 비상한 애국적열의와 견인불발의 노력에 의하여 본 대회가 제시한 투쟁전략과 방침들이 빛나게 관철되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 * *

경축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경축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는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가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최룡해동지, 조용원동지, 리병철동지, 김덕훈동지와 당 제8차대회 대표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관록있는 중요예술단체들을 비롯하여 군대와 사회의 예술단체, 예술교육기관 창작가, 예술인, 체육인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한 공연은 제1부 《당은 우리 향도자》와 제2부 《영원히

우리 당 따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성악과 기악, 무용과 집단체조가 3차원다매체, 특색있는 조명, 수직배경대와 립체적으로 조화되어 장중하면서도 황홀한 예술의 세계를 펼쳐보인 공연은 시종일관 관중들의 심금을 털어 잡았다.

공연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장구한 투쟁로정에서 강철로 다져진 일심 단결이 있는 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와 과업들은 반드시 실현되고 사회주의위업은 승승장구할것이라는 철리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이였다.

본사기자

최정예 장군의 열병식, 열광의 환희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열병대원들과 관중들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지난 1월 14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기념 열병식이 거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애국주제의 장중한 선률이 울리는 가운데 21발의례포발사와 국기게양식에 이어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동지가 탄 지휘차를 선두로 열병식이 시작되었다.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진군길을 줄기차게 이어갈 인민군장병들의 의지를 파시하는듯 명예기병종대가 선참으로 호기차게 달려나갔다.

이어 친위대오들이 열병광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하였다. 그뒤를 이어 제1군단, 제2군단종대를 비롯한 각 군단종대들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의 종대들, 지상저격병, 해상저격병, 공중저격병, 경보병종대 등이 힘찬 보폭을 내짚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만세의 함성을 목청껏 터치며 기계화보병사단종대, 산악보병종대, 전자교란작전부대종대, 사회안전무장기동부대종대 등도 박력있는 군악에 맞추어 광장을 누벼나갔다.

관중들은 혁명의 년대들에 력사적인 당대회들을 결사보위하며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진군의 돌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놓은 인민군장병들을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다.

열병광장은 비행대형으로 당마크를 형상하고 축포탄으로 《8》자를 수놓는가 하면 승리의 빛발을 상징하듯 부채살대형을 펼친 비행기들의 비행운으로 더욱 이채롭게 장식되었다.

열병비행과 함께 장갑차종대를 선두로 한 기계화종대들의 행진이 있었다.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전진하는 최신형전술로켓종대들과 함께 집초되는 투광속에 강철포신을 번뜩이며 진군하는 주력땅크종대, 최신형자행포종대 등의 모습은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온갖 적대세력들을 무쇠주먹으로 짓뭉개버릴 필승의 기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우렁찬 동음으로 지심을 흔들며 열병광장을 횡단한 수중전략탄도탄, 세계최강의 병기의 모습은 해방후 기관단총생산으로부터 첫걸음을 뗀 조선의 국방공업이 얼마나 아득한 높이에 올라서고 얼마나 거대한 힘을 비축하였는가를 과시하였다.

관중들은 당 제7차대회에서 당 제8차대회에로 질풍쳐온 력사의 그 5년간 5천년 민족사의 숙원인 부국강병의 대업을 이룩하시여 전체 인민과 후대들에게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은 혁명강군의 힘, 당의 절대적인 힘이야말로 일심단결의 원천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뚜렷이 과시하였다.

열병식이 진행된 후 축포가 발사되었다.

김일성광장과 대동강반에 모여든 수도시민들은 당 제8차대회에 드리는 축하의 꽃다발인양 화려하고 눈부신 불의 세계를 바라보며 환희의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시민들은 광장에 흥겨운 춤바다를 펼치였다.

오색찬연한 불보라가 밤하늘을 환히 밝히는 속에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등의 노래에 맞추어 춤물결이 세차게 설레인 화폭은 그대로 시련속에서도 굴함없이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자위적힘을 키우며 승리의 길을 걸어온 전체 인민의 마음의 분출이였다.

시민들은 열병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수도의 거리들을 통파하는 열병대원들을 열렬히 환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과 환희를 안고 진행된 최정예당군의 열병식과 축포발사는 조선의 로정은 앞으로도 승리로 빛날것임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당 제8차대회기념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된 데 이어 축포발사가 있었다.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수도의 거리를 통파하고 있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기념 열병식참가자들



더 많은 철강재 생산으로

를 기술적으로 완성하고 능력을 확장하여 철강재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철강재 생산 목표를 점령하자면 주요 제철, 제강소들에서 현존 생산 공정들을 선진 기술로 개조하고 에너르기 절약형의 새로운 제철로들을 건설하여 생산 능력을 확장하며 철광석 생산을 활성화하고 북부지구의 갈탄을 선철 생산에 리용하기 위한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높고 방대한 투쟁 목표가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에는 금속 공업 부문에서 주체 철생산 체계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하여도 그렇고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 세우자고 하여도 철이 있어야 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에 금속

공업 부문에서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우리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주체화, 자립화 실현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 강철 생산을 활성화하여 지난 해에만도 큰 물파해 복구와 국가의 중요 대상 공사에 필요한 암연 강재를 충분히 보장하였다. 하지만 그 날에 우리는 심각한 교훈도 찾았다.

국내 원료와 연료에 의거하는 주체 철생산 체계를 확립해 놓은 귀중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철강재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할 과업이 일군들에게 나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게 된다.

금속 공업성 국장 김황호

우리의 철과 기술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보고에는 교통 운수 부문의 현 실태와 뚜렷한 개선을 위한 과업들도 언급되어 있다.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철도 운수 부문의 기본 목표는 철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수송 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 철도 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것이다.

이 과업을 받아안은 우리 김종태 전기 기관차련 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해 벽두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

이를 위해 기업소에서는 기관차와 객차 수리 계획을 보다 면

밀히 세우고 내미는 한편 새형의 전기 기관차들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따라 세우고 있다.

벌써 정초부터 현재까지 보름 동안에 객차 수리 계획이 지난 시기에 비해 1.5배로 넘쳐 수행되고 로동자들 속에서 창의 창발성이 최대로 발휘되는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앞으로 우리는 기업소의 현대화를 다그치는 한편 설비와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제품의 실수율을 높이기 위한 과학 기술 성과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며 지하 전동차의 계렬 생산 사



업도 힘 있게 밀고 나가겠다.

지금 우리의 철도 운수 부문의 로동계급은 가까운 앞날에 우리의 힘과 기술로 철도의 현대화를 다그쳐 철도 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열의에 넘쳐 있다.

김종태 전기 기관차련 합기업소 생산부 기사장 장명철

콩우유에 깃든 사랑



새해를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친필서한을 뜨겁게 받아안았던 그 감격이 가셔지기도 전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받아안았다.

인민에 대한 강렬한 사랑

새로운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에 나는 조국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전과정을 텔레비죤으로 시청하였다.

조국땅에서 인민들과 함께 대회 전과정을 시청할 때 나의 가슴은 류다른 기쁨과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당대회장의 연단에 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안을 뵈옵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들으니 잊지 못할 5년전의 일이 되새겨졌다.

주체105(2016)년 5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장에서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축하문을 랑독하고 축기를 정중히 올리는 행운을 지니였다.

그것이 어찌 차상보부의장만이 받아안은 영광이겠는가. 그 소식에 접한 재중동포들은 우리 동포들모두의 영광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기뻐서 울고 감격에 겨워 울었다.

이렇게 그날의 그 감격이 되살아나니 마치 내가 당대회에 참가한듯 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8차대회에서 9시간에 걸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였다. 나는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서도 그이께서 경제발전과 인민을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는가를 잘

알수 있었다.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그이께서 기울이시는 사랑과 정은 보고의 구절구절에 그대로 어려있었다.

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 나는 당 제7차대회 이후 지난 5년간 조선로동당이 쟁취한 승리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은것으로 특징지을수 있다는 내용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다. 나를 비롯한 우리 재중동포들이 또 한분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나날이 발전하는 조국의 모습을 보며 해외에서도 얼마나 큰 힘을 얻고있으며 또 얼마나 민족적 자부심에 넘쳐 궁지높이 살고있는지 모른다.

나는 조국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파업관찰에서 새로운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 뇌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재중동포 류창환

과 밀음이 차넘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고를 들으며 우리는 더욱 확신하게 된다.

-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조국의 앞날은 언제나 밝고 창창하다.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복무의 려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조선로동당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더 좋은 래일을 가꾸어가고있다.

애국편직물공장 지배인 강명국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서 우리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공장에서는 애기젖가루, 영양암가루, 각종 남새가루 등 젖먹이와 젖떼기식료품만이 아니라 탁아소, 유치원, 학생들의 성장발육에 좋은 콩우유와 콩산유를 정상적으로 풀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특히 콩우유생산과 공급은 근 30년간 하루도 중단함이 없이 진행하고있습니다. 아마 지금 까지 생산한 콩우유는 6억여L나 되고 콩우유차들이 달린 거리는 지구둘레를 710여회나 돋 것과 같을것입니다.

이 수자를 되새겨볼수록 저의 가슴속에는 우리 후대들을 건강하게 키우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꽂피우시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헌신과 로고가 가슴뜨겁게 안겨 옴을 금할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 공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의해 1980년대 중엽에 콩우유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과 향이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 니다.

이 사실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에 현대적인 콩우유생산기지를 꾸리실 구상을 펼치시고 적극 내밀도록 해주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군들은 중요 대상건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때여서 아이들에게 콩우유를 먹이는것쯤은 미루어도 될 일로 여기며 이 사업을 진척시키지 않고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잡아주시고 생산설비에 대한 자료도 보내주시였으며 콩우유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하여 공장에는 콩우유종합가공설비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지고 언제나 신선한 제품을 보장하기 위한 랭동설비들과 보관용기들이 마련되었으며 국가가 보장해주는 원자재를 가지고 주체81(1992)년 6월 1일 어린이들의 명절을 계기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 맞게 영양학적으로 아이들에게 흡수력이 제일 좋은 시간을 콩우유공급시간으로 정해주시고

수도의 모든 아이들과 학생들이 콩우유를 동시에 먹을수 있도록 특별조치도 취해주시였습니다. 하여 이때부터 인민들이 《왕차》라고 부르는 콩우유차들이 정연하게 세워진 공급체계에 따라 수도의 거리를 달리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으며 모든 도로들에서 이 차들에 대한 우선적이고 즉시적인 통과질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게 되면서 콩우유생산에서는 난관이 조성되



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조치에 따라 공장에서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계속 울리였으며 콩우유차는 정해진 콩우유공급시간에 탁아소, 유치원, 학교들에 어김없이 가당군했고 입원한 학생들을 위해 병원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였습니다.

새 세기 첫 해인 주체 90(2001)년의 잊지 못할 7월 8일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찾으시였던 길로 공장에 오신 그이께서는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공장의 현대화수준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있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최우선적으로 풀어줄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생전에 어린이들을 그처럼 사랑하시였는데 그 뜻을 받들자고 자신께서 오늘 이 공장에 왔다고, 동무들이 인민에 대

되새겨지는 이야기

그01의 기쁨

주체 88(1999)년 9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한 발전소를 돌아보시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유원지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유원지는 빽빽이 자란 전나무, 가문비나무들이며 늘어진 수양버들들로 하여 어찌 보면 밀림을 련상시키였고 또 어찌 보면 한폭의 풍경화 같았다.

그이께서는 수립지대 한켠에 있는 자그마한 못앞에 이르시였다.

그러자 동행한 현지일군이 이곳은 인민들이 낚시질을 할수 있게 꾸린 곳이라고, 여기에서 초어, 기념어, 잉어를 기르고 낚시질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원산에 갔을 때 송도 원에 술한 사람들이 찾아와 노는것을 보았다고 하시며 여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고 물으시였다.

명절날, 휴식날 사람들이 가족단위, 직장단위로 많이 와서 불고기도 해먹으며 즐겁게 휴식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이의 존안에는 기쁨의 미소가 실리였다.

그이께서는 유원지에서는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는것보다 자체로 싸 가지고 온 음식을 밖에서 먹는것이 더 좋다고, 평양시민들도 모란봉이나 대성산유원지에 놀러가서는 식사를 유원지식당에 들어가서 하는것이 아니라 준비해 가지고 간 음식을 나무아래에 펴놓고 가족단위로 빙 둘러앉아 한다고 이야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유원지를 둘러보시며 특색있게 잘 꾸렸다고, 정말 멋있다고 하시며 유원지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인민들에게 적으나마 웃음과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것이라면 무엇이나 크게 여기시며 거기서 락을 찾으신 그이의 하루였다.

량인가 질인가

주체 100(2011)년 1월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관에 진렬하여놓은 장절임제품들을 보아주실 때였다.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은 그전부터 장절임을 잘 만드는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하시면서 진렬된 제품들을 흥미있게 보아주시였다.

조합을 찾아오신 그이께 너무도 소박한 제품들을 진렬해놓고 보여드리는것 같아 송구스럽기 그지없던 일군은 뜻밖에도 그이께서 자기들의 생산제품들을 기억해주시며 치하의 말씀을 하시자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제품진렬장에 진렬하여놓은 장절임제품들 가운데 풋고추장 절임과 미나리장절임도 있다고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여도 과학기술적인 타산을 잘하고 질을 높여 그것이 자기 도의 독점지표로 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진렬해놓은 제품들이 너무도 보잘것 없는것이라고만 생각하던 일군은 한순간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려는 그를 바라보시며 지금 도들에서 자기 도의 독점지표로 될수 있는 식료품들을 만들지 못하고 가지수만 늘려 하고있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일군은 그이의 말씀을 자자구구 새겨안으며 독점지표는 량이 아니라 질문제임을 절감했다.

* * *

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일을 잘해야 한다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영양식료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 공급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남기시고 공장을 떠나시였습니다.
참으로 콩우유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인민과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전설처럼 길이 전하여질것입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지배인 구정철

강력한 군사력을 마련해주시려

평화로운 환경에서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고념원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탁월한 영장을 모실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지나온 조국의 력사는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위대한 영장을 모시는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조국인민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제재와 봉쇄, 군사적압살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자기 운명, 자기 존엄을 지키고 자기의 의지대로 국가건설을 힘 있게 밀고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은 군사력을 강화하시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신 영장이시다.

그이께서 나라의 정사를 돌보신 나날은 인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최악의 역경이 겹쌓인 나날들이었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랭전이 종식된것을 기화로 더욱 악랄해진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하여 조국의 앞길에는 형언할수 없는 난관이 겹쳐들었다.

바로 그러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나라를 굳건히 지키시면서 이 땅우에 변혁의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당시 그이께서는 숨죽은 공장들과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두고 가슴이 아팠지만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것은 군대를 강화해야만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켜낼수 있고 경제를 다시 추켜세워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기때문이였다.

그이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길은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 군력강화의 길이였다.

그이의 헌신과 로고를 전하여주는 쪽잠파 쭈기밥에 대한 일화며 열어든 발을 찬물에 녹이시였다는 이야기, 색날은 애전솜옷에 깃든 만단사연은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고 있다.

송고한 애국애민의 뜻과 굳센 의지로 전선에서 전선으로 종횡무진하시며 군인들에게 조국수호의지가 비낀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기념으로 수여해주시고 백승의 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안겨주신 장군님이시다.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 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던 시기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신것은 그이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였다.

오직 자기의 힘으로 국방공업을 강화하여야 나라의 군력을 강화할수 있고 사회주의를 지킬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신 그이께서는 국방공업발전에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수공장들을 련이어 찾으시고 나라의 실정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성능높은 무기들을 더 많이 질적으로 생산하도록 하시였다.

국방과학과 군수공업발전에 기울이신 그이의 로고와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넘볼수 없는 강위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다 갖춘 강군으로 장성 강화되게 되였다.

그이께서 이어가신 선군령도의 길에서 군력을 핵심으로 하는 나라의 국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령장의 슬하에서 인민군대는 사회주의조국의 수호자로서뿐 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강국건설의 제일기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왔다.

그이께서 이루하신 군력강화의 업적이 있기에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조국의 오늘이 있고 자립, 자력으로 융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가 펼쳐질수 있은것이다.

오늘 조국인민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답보를 마련해주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군대

군대라는 부름은 평화적인 시기에도 전쟁에 대처한 상비적인 무력으로서의 표상을 먼저 가지게 한다.

그만큼 군대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평시에 싸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물론 자연재해나 긴급구조작업과 같은 나라에 조성된 위험한 일들에 군대가 동원되는 일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조국에서는 군대가 조국보위는 물론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

장들마다에서 만짐을 떠이고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다.

인민이 바라는 곳, 인민이 아파하고 걱정하는 곳에는 언제나 인민군군인들이 서 있다.

지난해 뜻밖의 자연재해가 련이어 들이닥친 피해지역들에서 인민군군인들은 앞장에서 일자리를 푹푹 내며 피해흔적을 말끔히 가셨다.

복구가 시작되어 제일 먼저 피해를 가신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도 군인들의 위훈이 새겨져 있다.

당시 큰물과 폭우로 불파 몇십분 사이에 살림집은 물론이고 리의 논과 밭은 모두 죽탕이 되

여버렸다.

너나없이 맥을 놓고 주저앉아있을 때 인민군군인들이 그들곁으로 달려왔다.

군인들은 밤잠도 잊고 강북리의 농사와 건설도 다 맡아안았다.

때는 5월 중순이라 적기가 이미 지난 시기여서 농작물의 피해복구는 사실 어려웠다.

그러나 군인들은 모판을 갈아엎고 새로 모를 내었으며 엉망이 된 밀보리밭을 다시 갈고 씨앗을 뿌리였다. 동시에 큰물로 무너진 집터들에 새 집의 기초를 다져나갔다.

불파 며칠사이에 논과 밭이

완전히 일신되었으며 마을의 자태가 드러났다.

주민들은 자기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며 헌신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감탄해 마지않았다.

새집들이하는 날 강북리의 한 농장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군인들은 마른 군복보다 젖은 군복을 입고 산 날이 더 많았다. 비는 왜 그리도 억수로 내렸고 태풍은 또 얼마나 길길이 날쳤던지. 지금도 무더기비속에서 인민을 보위하고 농작물을 구원하자고 결사전을 벌리던 군인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공사가 한창이던 8월 어느날 무더기비가 쏟아지더니 또다시 큰물이 논둑을 치며 쓸어들었다. 자칫하면 논이 매몰될 수 있는 위험한 순간 군인들은 서슴없이 세찬 물살을 막기 위해 몸을 내댔다. 지휘관과 병사들 모두가 어깨성을 쌓으며 사포치는 물속에서 장벽을 형성하였다. 평생 강의 제방뚝이 당장 터져나갈 것 같은 위험한 순간이였지만, 자칫하면 물살에 휘말려 떠내려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흙마대를 버티여섰다. …

이 이야기는 인민들 속에 전



인민군군인들이 건설한 삼지연시의 일부

해지고 있는 군인들의 위훈가운데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인민을 위하는 군인들의 진정은 강북땅만이 아닌 온 나라 피해복구장들과 인민을 위한 문화휴양지들, 기념비적건축물 그 어디에나 담겨져 있다.

대동강의 쭉섬 한가운데 자리잡은 과학기술전당이며 6년 전 라선시의 피해지역들에 일떠선 마을들과 마식령스키장, 미래과학자거리,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전변된 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중평남새온실농장과 함경북도양묘장 등 이 땅의 모든 기념비적창조물들에는 인민을 위한 군인들의 멀사복무의 정신이 숨배여 있다.

다면 군인들이 지니고 있는

인민에 대한 멀사복무의 정신은 어디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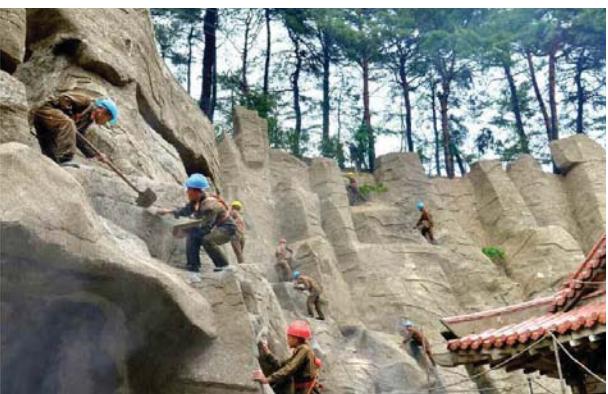
그것은 인민군대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있다.

그 사랑과 믿음은 군인들이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참된 복무의 길에서 변함없이 자기의 전투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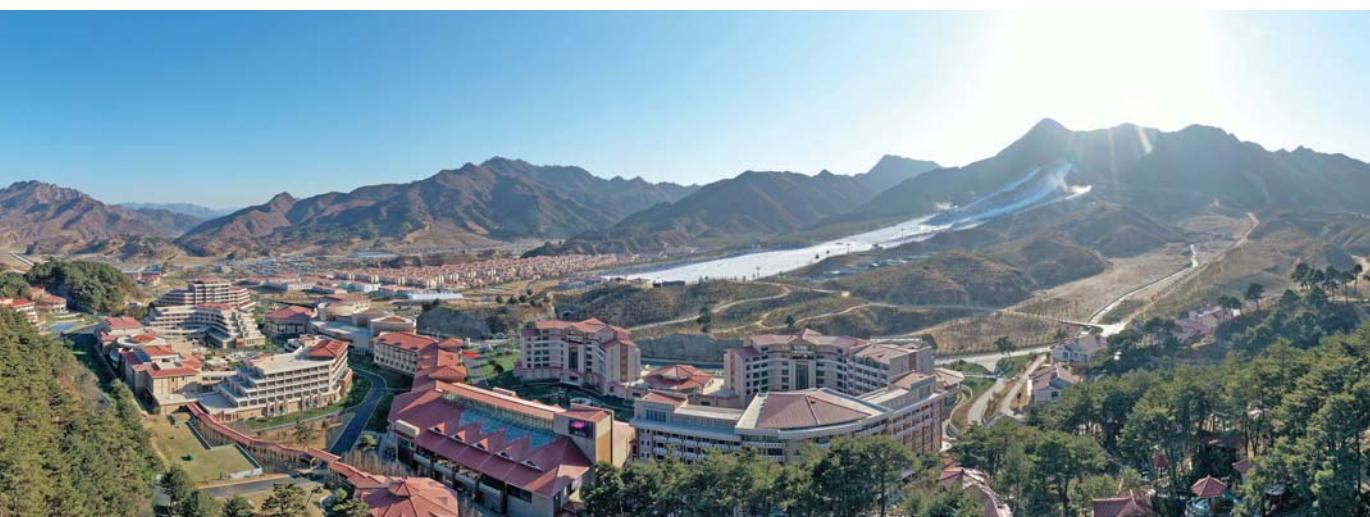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자기의 군대를 『우리 군대』라고 자랑스럽고 궁지 높이 부르고 있다.

그 부름은 인민들의 생활에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부름, 기대와 확신의 대명사로 되고 있다.

본사기자



인민군군인들이 건설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주체108(2019)년 촬영



피해복구건설에서 헌신의 땀을 바쳐가고 있는 인민군군인들 주체109(2020)년 10월 촬영



삼지연시인민병원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로 면모를 일신한데 이어 삼지연시인민병원이 새로 일면서 시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의 수준을 보다 높일수 있게 되었다.

『환자들보다 병원을 보고싶어 찾아오는 <참관자>들이 더 많은것 같다. 시민들은 약간만 몸이 불편해도 찾아와 치료를 받고가는데 누구나 좋아하고 있다. 국가의 혜택으로 우리 시민들이 선진수준의 의료봉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병원원장 최호철은 이야기하였다.

병원은 지난해 10월 보건의학적요구와 현대건축미가 구현된 지방인민병원의 표준으로 일떠섰다.

연면적 2만 2천여 m²인 병원에는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신속정확히 할수 있게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구축되고 의료봉사의 정보화가 실현되었다.

병원에는 내파, 외파, 소아파, 산부인파, 치파를 비롯하여 최신의료설비와 기구들이

갖추어진 36개의 치료파들이 있다.

특히 치파에는 초음파치석제거기와 각종 보청기재를 비롯하여 전문치파의료설비들이 있어 치료에서 보다 큰 전진을 가져올수 있게 되었다.

병원에는 입원실들과 기능회복을 위한 운동치료실, 어린이



들의 놀이장들과 실내공원 등
도 있어 환자들과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보장해
주고있다.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평양

의 중앙병원기술전습조와의련
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
계밀에 현대의학의 발전추세에
맞는 진단과 치료방법들을 부
단히 습득하고 림상실천에 적
극 구현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윤혁
강진성



오랜 역사를 가진 고려종이



고려종이에 인쇄한 《팔만대장경》과 《교정별록》

해외에 계시는 동포여러분,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상식을 주는 《민족의 향기》 린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눈같이 희고 비단처럼 부드러운 손맛과 수천년이 흘러도 문자를 그대로 보존하는 조선종이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동포여러분에게는 조선종이라기보다 고려종이라는 이름이 더 귀에 익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선종이가 고려시기를 전후로 하여 고려청자기, 고려인삼과 함께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나라들과 세계각지에 전파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조선종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신천군 통산리 돌관무덤에서는 좁은 놋단검과 놋거울 등을 종이로 몇 번씩 쌓은 유

물이 발굴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조사한데 의하면 이 유물은 B.C. 10세기 중엽의 것이라는 것이 고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쌓은 종이도 그때 시기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종이는 그 역사도 오래 뿐 아니라 질도 매우 좋았습니다.

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명된 종이유적이 평양의 여러 곳에서 발굴되었는데 150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본래의 흰색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종이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동포 여러분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유구한 발전행로를 거쳐온 조선종이는 고려(918년~1392년) 시기에 와서 그 질적 수준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고려시기에 목판인쇄기술이 더욱 세련되고 금속활자의 발명 등으로 인한 인쇄술의 급속한 발전, 유명한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서적 출판사업이 종이에 대한 요구를 더욱 증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고려에서는 1145년 주와 현의 등급에 따라 지전의 규모를 설정해주고 닥나무 재배를 국가적으로 장려하였으며 판영제지공장인 지소를 설치하고 중앙과 전국 각지에서 명표지, 표지, 취지, 불경지, 청자지, 금분지 등 여러 가지 종

류의 종이를 많이 생산하였으며 이웃나라들에 수출까지 하였습니다.

고려종이가 얼마나 이름이 났는지 당시 주변 나라들에서는 공폐지(임금에게 바치는 종이)로 고려종이를 썼으며 불교경전의 편찬을 위해 대량적으로 수입하여 갔다는 기록도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여러 나라의 종이유물에 비한 고려종이의 우월성에 대하여 1894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조선서지학》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의 책들에 쓰인 종이는 어느 시대의 것을 막론하고 부드럽고 탄탄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당히 얇은 종이로 만든 옛날책들도 오랜 시일 견디어 왔다. 이것은 절간이나 유럽 장서고들에서 발견된 고려시기 책들에 누런 빛이 조금도 없고 종이 도무지 먹지 않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동포여러분께 고려종이의 발생과 그 발전에 대한 옳바른 이해를 주리라

순안고려종이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일부



고릅니다.

우아하면서도 질기고 부드러우며 수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려종이에 대한 제지기술은 오늘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안고려종이공장에서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어려있는 고려종이생산방법을 그대로 계승하여 닥나무를 주원료로 하는 우수한 종이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지공정들은 대부분이 수공업적입니다.

얇아낸 원료를 잘게 짓이기는 타해공정 하나만 놓고보아도 숙련공의 육안과 손감각으로 원료의 가공상태를 가늠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원형상태의 매 섬유오리들은 결합면적이 넓어지며 공고한 결합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닥나무를 원료로 하는 고려종이는 섬유 한오리의 길이가 9~12mm로서 일반종이원료들의 섬유길이보다 3배이상이나 됩니다. 이러한 원료상특성은 고려종이가 다른 종이들보다 결합 및 당김세기가 우수하고 강한 보존성을 띠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됩니다.

공장에서는 국가비물질유산으로 등록된 고려종이제조기술을 더 발전시켜 생산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서보존용종이와 사진인쇄용종이는 그 수명이 2000년 이상이며 서예종이는 흡수성과 특수한 필기성 등으로 하여 서예가들과 조선화화가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조국방문기념으로 가정들과 사무실에 걸어놓은 서예작품들과 조선화작품들을 보실 때마다 그 작품들이 담겨진 고려종이의 역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전경일

정월대보름명절의 민족풍습

정월대보름명절은 우리 인민들이 오래전부터 즐겨맞은 민속명절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대보름날을 명절로 맞았다는 기록은 삼국시기부터 전하여왔지만 후세와

절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정월대보름명절은 보통 14일부터 시작되였는데 14일은 작은 보름이라고 하고 15일은 대(큰) 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대보름명절에 새해의 행운과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소박한 념원을 반영한 여러 가지 의례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명절의 행사로는 대보름의 달맞이, 화불놀이, 파일나무시집보내기, 통알뜨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보름의 달맞이는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대보름날 저녁 동리사람들 모두가 뒤동산에 올라가 솟아오르는 동근달을 구경하였는데 이것을 달맞이라고 하였습니다. 사

람들은 떠오르는 달을 먼저 본 사람에게는 그해 행운이 차례진다고 하였으며 보름달의 모양을 보고 한해농사의 흉흉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바줄당기기, 다리밟기, 수레싸움놀이, 연떡우기, 바람개비놀이 등 재미있는 민속놀이들을 하면서 즐기였습니다.

대보름날의 독특한 음식으로는 오곡밥과 약밥, 복쌈, 9가지 나물반찬, 엷을 들 수 있습니다.

14일 점심에는 국수를 놀려

먹었고 15일 아침에는 덥히지 않은 찬 술을 한잔씩 마시였습니다. 이날 첫새벽에 생밤이나 호두, 은행, 잣과 같은 열매를 깨물면 이발이 튼튼해지고 부

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런것을 먹는 부름깨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민들은 새해의 행운과 풍작, 풍어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안고 민속놀이와 민족음식 등으로 정월대보름명절을 유쾌하고 흥미있

게 보내였습니다.

이날의 흥취는 온 한해 아름다운 추억으로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사회의 발전과 함께 정월대보름의 여러 행사들이 없어졌지만 달맞이 그리고 9가지 나물반찬과 국수 등을 먹고 찬 술을 한잔씩 마시는 풍습은 오늘도 인민들속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사기자 연 옥



경축의 축포 조선중앙통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 드리는 축하의 꽃다발인양 무수한 불꽃들이 평양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

경축의 축포!

그것은 새로운 승리를 예고하는 서광이며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의 무한한 신뢰심의 분출이다.

